고려 색채 담아낸 찻그릇 개발



박동춘의
고려茶문화, 그 아름다움
⑦ 중국 영향 벗어난 고려

고려시대 비색 청자 다완(茶碗, 찻사발)은 찻그릇의 예술미와 실용성을 두루 갖춘 일품의 차 도구이다. 맑고 은은한 비색 사발이 주는 안정감은 맑고 따뜻한 차의 색, 향, 미를 담아내기에 족하다. 그러므로 간극의 예술미를 갖춘 청자 다구의 완성이란 바로 고려인의 차에 대한 열정과 호기심, 그 시대의 문화적 성숙도를 반영한 것이라는 점에서 찻그릇은 그 시대 차 문화의 품격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셈이다. 이런 관심으로 고려시대 다구를 살펴보면, 청자 찻그릇의 형태가 완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차를 즐긴 고려인의 취향과 실용성이 담론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다구(茶具, 점다할 때 사용하는 차 도구)의 쓰임새를 주목해 가는 과정에서 고려인의 실용성이나 응용력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서긍(徐兢)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은 이런 문제를 풀어 줄 중요한 문헌이다. 그가 기록한 12세기 고려인이 사용했던 다구로는 탕호(湯壺)와 은로탕정(銀爐湯鼎), 비색 다완 등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고려도경〉 '기명(器皿)', '다조(茶俎)'에서 드러난다. 〈고려도경〉에 언급된 탕호의 모양과 쓰임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탕호의 모양은 마치 꽃병과 같은데, 조금 납작하다. 위에 뚜껑이 있고 아래에는 승반이 있어 따뜻한 기운이 식지 않도록 했는데, 또한 옛날 온기(溫器)에 속한다. 고려인은 차를 끓일 때, 흔히 이 탕호를 사용한다. 전체 높이는 1척 8촌이고 지름은 1척이며, 용량은 2말이다. (湯壺之形 如花壺而差扁 上蓋下座 不使泄氣 亦古溫器之屬也 麗人烹茶多設此 通高一尺八寸 腹徑一尺 量容二斗)

윗글은 '기명'의 일부 내용으로, 탕호는 뜨거운 물을 담는 용구이며 용량은 2말이었음이 드러난다. 당시 고려인은 가루차를 선호했다. 그러므로 탕호에 뜨거운 물을 담아 이동했을 것이며, 탕수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했기 위해 승반(承盤)을 사용했다. 이는 가루차를 격불(擊拂, 다선으로 차를 휘저어 거품을 만듦)할 때, 물의 온도가 낮아지면 다화(茶花)가 곱게 섬세하게 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탕호를 이용하여 뜨겁게 끓인 물을 이동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원래 승반(承盤)은 호(壺, 주자(注子), 혹은 주전자)에 들어 있는 물질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뜨거운 물을 담아두는 용기이다. 주자(注子, 주전자)의 받침에 해당된다. 그리고 서긍은 탕호를 설명하면서 "옛날 온기(溫器)에 속한다"고 하였다. 온기(溫器)는 그릇 속에 들어 있는 물질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든 그릇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청주 주자와 승반(받침).

승반이 있는 탕호는 온주(溫酒, 따뜻하게 먹는 술)를 담는 용기나 혹은 따뜻한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탕류(湯類)를 담았던 그릇이다. 그런데 12세기 고려인들은 차를 끓일 때 탕호를 사용했다는 것이 서긍의 증언이다. 탕호를 다구(茶具)로 응용했던 고려인의 지혜가 엿보이는 부분이다. 송나라에서는 탕호를 사용한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고려인의 개방적이고도 활달한 응용력이 돋보이는 탕호의 쓰임새다.

한편 탕호의 모양이 꽃병보다 낮고 퍼진 납작한 형태였고, 뚜껑과 승반이 있었다는 사실도 서긍을 통해 밝혀진 것인데, 현재 고려시대 유물 중에 승반이 있는 탕호는 술주자(注子)와 차 주자(注子)로 썼다. 그런데 현재까지 어떤 것이 술주자이며 어떤 형태가 차 주자인지는 분명하게 분류되지 않았다. 차후 학계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개진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고려시대 다구에 관한 기록은 '기명'의 '다조(茶俎)'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다.

근래에는 차 마시기를 좋아하여 도구를 잘 만든다. 금화오잔, 비색 작은 다완, 은로탕정은 모두 중국 것을 모방해 만든 것이다. 무릇 연회를 열면 뜰 중앙에서 차를 끓여 은하로 덮어 천천히 걸어와서 내려놓는다.(邇來頗喜飮茶 益治茶具 金花烏盞翡色小甌銀爐湯鼎 竊效中國制度 凡宴則 烹於庭中 覆以銀荷徐步而進)

윗글에 따르면 12세기 고려에서는 송나라의 다구를 모방하여 찻그릇을 만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12세기 고려에서 생산하는 차와 다구들은 이미 중국 찻그릇의 모방하던 과정을 벗어나 고려색채를 띤 차 문화를 형성했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다구의 형태에 있어서도 고려인의 기호와 안목, 풍토성을 함의한 찻그릇이 생산되어, 독특한 찻그릇을 완성했다. 특히 비색 청자의 맑고 은근함은 고려 색을 담아낸 그릇으로서 맑고 은근한 차의 품성을 담아내 비색과 어우러진 담백하고 생기 있는 고려 차의 풍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찻그릇이다.



보스턴박물관이 소장한 은제 주자와 승반.

찻물 온도 지켜내기 고민해
탕호를 다구로 활용하는 등
고려인 취향 · 실용성 반영
中문화 모방 점차 줄어들어

그뿐 아니라 고려에서는 북송에서 유행했던 흑유잔도 생산되었는데, 백차의 구름 같은 차의 아름다운 색조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효과를 준 그릇이 바로 금화오잔이다. 오잔(烏盞)은 검은색 찻잔으로 백차를 선호했던 시기에 유행했던 찻그릇이다. 그런데 금호오잔엔 검은 발색의 찻그릇에 찬란하게 빛나는 꽃이 그려진 찻잔, 이는 송대의 토호다잔(兎毫茶盞)이 넘볼 수 없는 예술미를 드러낸 찻그릇이었을 것이다. 이처럼 고려인의 상상력과 이상은 찻그릇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다. 특히 고려인의 당당함은 사신을 위한 연회에서 고려에서 만든 차를 대접했다는 대목에서 확인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려에서 생산하는 차의 맛은 쓰고 떫어서 입에 댈 수가 없다. 오직 중국의 납차나 황실에서 보낸 용봉단차를 귀하게 여긴다. 중국 황실에서 선물로 보낸 차 이외에 상인들도 판다… 중략 … (연회에서)시중드는 사람이 말하기를 '차를 다 돌렸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야 차를 마실 수 있었으니 식은 차를 마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 관사 안에는 붉은 찻상에 다구를 진열한 다음 붉은 비단으로 만든 상보로 덮는다. 매일 세 차례씩 차를 맛보는데, 이어 탕을 낸다. 고려인은 탕을 약이라고 하는데, 사신들이 탕을 다 마시면 반드시 기뻐하였고 혹 다 마시지 않으면 자기를 깔본다고 생각하여 불쾌히 여겨 가버리기 때문에 항상 억지로 마셨다.(土產茶味苦澁不可入口 惟貴中國臘茶幷龍鳳賜團 自錫賚之外 商賈亦通販… 中略… 候贊者云茶遍乃得飮 未嘗不飮冷茶矣 館中以紅俎布列茶具於其中 以紅紗巾冪之 日嘗三供茶而繼之以湯 麗人謂湯爲藥 每見使人飮盡必喜 或不能盡以爲慢己 必怏怏而去 故 常勉强爲之啜也)

윗글은 고려시대 차 문화와 관련하여 서긍의 경험했던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그런데 그가 보고 느낀 고려 차의 맛이 쓰고 떫어서 마실 수가 없었다고 말한 점이다. 그가 고려에 사신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간 시기는 선화 5년(1123)으로, 고려 인종 때이다. 당시 고려의 차 문화는 가장 난만한 문화를 형성했던 시기이다. 그러므로 고려에서 생산한 뇌원차의 품격은 송에서 생산한 단차와도 견줄 수 있는 차였는데, 이는 이규보의 〈시후관에서 쉬면서(憩施厚館)〉에 "차를 다려 맛보니(試嘗一甌銘) 맑고 시원한 차 거품이 내 목으로 넘어가네(氷雪入我喉)"에서도 그 품격이 확인된다.

그런데도 서긍은 무슨 연유로 고려에서 생산된 차가 쓰고 떫어서 입에 댈 수가 없었다고 말한 것일까. 그 답은 이렇다. 바로 그가 "식은 차를 마시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말한 점이다. 당시 고려도 백차를 선호하여 단차류인 가루차를 마셨다. 단차의 음다법은 다완에 가루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은 후, 격불하여 다화(茶花, 차 거품)를 피워내는 점다(點茶)였다.

그런데 서긍이 말한 것처럼 식은 차를 마셨다는 것인데, 식은 차의 맛은 쓰고 떫어진다. 이는 바로 차의 탄닌 성분이 공기와 접합하면 쓰고 떫은맛으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긍이 고려에서 만든 차를 입에 댈 수 없었던 연유는 의례절차 때문에 그가 차를 마신 시점에는 이미 차가 식었을 것이다. 그러니 차가 쓰고 떫어서 차를 입에 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이는 뜨거운 상태에서 차를 마셔야 그 효과가 증대되는 것인데, 이를 어겼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다.

특히 윗글에서 주목할 대목은 고려의 탕법의 특징이다. 왕실에서는 사신을 위해 하루 세 차례 차를 올렸고 이어 탕을 낸다고 한 점이다. 그리고 고려인은 탕을 약이라 말했다는 것인데, 이는 식은 차의 문제점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로, 뜨거운 탕을 낸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고려인은 식은 차를 마실 경우를 대비하여 차의 효능을 극대화할 방법으로 뜨거운 탕을 마시게 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또한 고려인의 차에 대한 응용력과 지혜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탕은 무엇일까. 끓인 물인가, 아니면 뜨겁게 차를 우린 것일까.

이에 문제를 해결할 문헌적 자료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12세기에 북송에서는 산차(散茶, 잎차)를 만들었으니 당시 고려에서도 산차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뜨겁게 우린 차를 탕이라 하고 약이라 말한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한편 극진히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은 고려 시대뿐 아니라 현대의 풍속에서도 남아 있는 모습이다. 현대의 생활 풍속이 많은 변화를 겪고 있지만 90대까지만 해도 손님을 후하게 대접하는 정서는 여전하였다. 그러므로 서긍이 서술한 고려인의 습성은 현재까지도 실존하는 풍습이란 점에서 민족성이란 그 산하와 풍토 위에서 그 특징적 함수관계를 축적해 가는 것인지도 모른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원장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TEL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